

2년 만의 기회... KIA 오선우 시즌 첫타석 '눈물의 홈런'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KIA 오선우와 롯데 이정훈이 반갑게 재회했다. 13·14일 KIA와 롯데의 잔여경기가 챔피언스필드에서 접하면서 ‘옛 동료’ 오선우와 이정훈이 1군 무대에서 다시 만났다. 사연 많은 두 선수의 특별한 2023시즌이다.

오선우는 지난 2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첫 타석에서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앞서 8월 23일 1군에 등록됐던 오선우는 이날 경기 전까지 4경기에서 대수비로만 투입됐다가 이날 9회 무사 1·2루에서 시즌 첫 타석에 섰다. 2021년 6월 29일 NC전 이후 2년 여 만에 맞는 기회이기도 했던 순간 오선우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밀어서 답장을 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만든 극적인 홈런에 오선우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선우는 “타구를 안 보고 뛰었다. 뛰다가 보니 공이 넘어갔다. 하이패시브 할 때까지는 좋았다. 감독님께서 인사 드리고 헬멧 벗고 혼자만의 시간이 됐을 때 울컥했다. 글썽거리다가 세수하고 왔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인 오선우의 눈물이었다.

오선우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2년의 시간이 생각났다. 서럽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약도 있었을 것이다. 한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안타도 아니고 홈런이라서 울었던 거서 같다. 그냥 울음이 나왔다”며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야구하면서 처음 온 것 같다”고 웃었다.

강렬한 홈런 이후 오선우는 10일 LG전까지 9타석을 더 얻었다. 안타는 1개, 삼진은 6개를 기록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12일 삼성전에

SSG 원정 극적인 홈런포 “공 안보고 뛰다보니 넘어가 눈물 글썽이다 세수하고 왔다”

서 오선우는 다시 한번 파워를 보여줬다.

이날 경기에서 오선우는 8-9로 뒤진 8회초 타석에 섰다. 대수비로 들어갔다가 맞은 첫 번째 타석. 오선우는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끌고 갔다. 3개의 홈런을 주고 받은 공방전 끝에 경기가 KIA의 9-10패로 끝났지만, 오선우는 만루홈런 두 방을 맞으면서 일방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던 경기에서 동점까지 만든 주인공이 됐다.

오선우는 “결과를 생각하니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안 좋은 공에도 나가게 되고 불리하게 되고 쫓기게 됐다. 나는 백업 역할이니까 팀이 이기는 데 주력하면서 기회가 오면 준비한 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두 번째 홈런 상황에서는 준비한 대로 하려고 했다. 신기하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해보자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야구를 이야기했다.

타격에 비해 수비가 아쉬움으로 짊어진 오선우는 외야수에서 1루수로 자리를 옮겼다. 퓨처스리그에서 수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의 결과 자신감을 얻었다.

오선우는 “경말 수비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수비 나가는 게 부담 없다. 재미있다”고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을 감동 시켰던 오선우의 시즌 첫 홈런. 이정훈에게도 기쁜 장면이 됐다. 포수 이정훈은 지난 시즌까지 KIA에서 활약했던 선수다. 역시 타

격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수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이정훈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KIA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올 시즌 롯데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지난해 1군 6경기 출장에 그쳤던 이정훈은 올 시즌 39경기에 나와 0.349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정훈의 첫 출발도 강렬했다. 이정훈은 7월 12일 NC 원정경기에서 9회초 롯데 선수로 첫 타석에 섰다. 그리고 이정훈은 이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첫 안타, 첫 홈런, 첫 타점을 신고 하면서 이정훈은 새 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정훈은 “선우랑 통화 자주했었다. KIA 있을 때도 선우가 많이 물어봤다. 좋아지고 있었다. 한번은 기회가 온다고 그때 후회 없이 하고 내려가라고 했다. 그런데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다. 전화했더니 울었다고 했다. ‘잘했다. 고생했다’고 이야기했겠다”고 웃었다.

누구보다 오선우의 마음을 잘 아는 홈런이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한 이정훈.

그는 “조급함이 없어졌다. 원래는 못 치면 내려갈 것이라는 걱정 많았는데 그 걸 떨쳐냈다. 편하게 하고 내려가자고 생각하게 되면서 편하게 즐기면서 하게 됐다”며 “다른 팀에 갔는데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는 KIA팬들에게 감사하다. 죄송한 부분도 많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두 선수는 이번 만남에서 그라운드 맞대결은 하지 못했다. 13일 경기가 6회말 강우콜드로 끝나면서 벤치에서 대기했던 두 선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고, 두 팀의 올 시즌 최종전이 예정됐던 14일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남은 가을 두 선수가 파워로 어필하면서 최종전에서 선의의 맞대결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선우

KIA, 강릉고 투수 조대현 지명

KBO 신인 드래프트

포수 이상준·투수 김태윤 등 선발

KIA 타이거즈는 강릉고 투수 조대현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KIA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수로 조대현을 지명했다.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지명은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전개됐다. KIA는 지난 해 11월 포수 주효상 트레이드 당시 키움에 2024 2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총 10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2023년도 구단 순위 역순으로 지명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5위 KIA는 6번째로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했다.

KIA의 선택은 강릉고 투수 조대현이었다.

193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조대현은 큰 키에서 내리꽂는 시속 151km의 직구의 위력적이라는 평가다. 투타를 겸업하면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등 좋은 체력도 갖추고 있다.

KIA는 3라운드에서 경기포 포수 이상준을 지명했다. 181cm, 105kg의 이상준은 강한 어깨와 장타력이 강점이다. 올해 열린 제31회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 포수로도 활약했다.

4라운드에서 지명한 개성고 투수 김태윤은 182cm, 88kg의 체격으로 시속 150km에 가까운 빠른 공을 던지는 ‘우완 파이어볼러’다.

5라운드에서 호명된 중앙대 투수 강동훈은 186cm, 95kg의 체격을 지닌 우완투수로 변화구와 경기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KIA는 6라운드에서 청담고 오른손 투수 최지웅을 선택했다. 188cm, 90kg의 최지웅은 구속이 빠르고 볼 회전력이 높은 구위형 투수로, 볼펜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KIA는 이어 7라운드 김민주(강릉영동대·투수), 8라운드 김민재(동원과학기술대·투수), 9라운드 강민재(군산상일고·내야수), 10라운드 성영탁(부산고·투수), 11라운드 김두현(동원대·내야수)까지 총 10명을 지명했다.

우완 사이드암인 김민주는 직구 움직임이 좋고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아 볼펜진 즉시 전력감으로 꼽힌다.

김민재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내야수 강민재는 군산상일고의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 우승을 이끈 중심타자로, 유연성과 파워를 겸비한 중장거리포 내야수다.

성영탁은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를 바탕으로 향후 전천후 활약이 기대된다. 김두현은 내야 전



KIA 타이거즈에 지명된 조대현. /연합뉴스

포지션에서 수비가 가능하며 송구 능력이 좋다.

지역에서는 광주일고의 내야수 송진형과 포수 배강이 각각 키움(6라운드), LG(라운드)로부터 이름이 불려졌다. 진흥고에서도 두 명이 지명을 받았다. 내야수 김호진이 삼성 6라운드, 포수 김재민이 NC 10라운드 선수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강대 투수 박지호(2년)도 두산 5라운드 지명 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지명에서는 송원대가 3명의 프로 선수를 배출해 눈길 끄는 팀이 됐다.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서 특급 커브로 화제가 됐던 투수 정현우(부산고 졸업)가 롯데 2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다. 얼리드래프트를 통해서 2학년 투수 김성경과 윤성보도 일찍 프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 최고 152km의 강속구를 자랑하는 김성경은 삼성의 5라운드, 140km 후반대 스피드를 보유한 윤성보는 SSG의 9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송원대 고천주 감독은 “세 명의 선수가 지명을 받아서 기분이 좋지만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걸린다. 모두 엄한 감독 아래서 열심히 잘 해왔다”며 “지명 받은 선수들 운동 열심히 하고 매력적인 공을 가지고 있다.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다”고 말했다.

고 감독은 또 “송원대의 장점은 운동에 대한 태도다. 운동할 때도 열심히 진중하게 한다. 야구에 대한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플레이도 그렇고 공수교대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덕아웃에서도 응원을 열심히 한다. 야구의 기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몸도 달라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태도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3위 수성 위해 서울로 간다



휴식을 끝낸 광주FC가 3위 수성을 위해 서울로 간다.

광주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3 30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이번 원정에서 광주는 10경기 연속 무패로 3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에 앞서 진행된 지난 3일 울산현대와의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이준희와 베카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광주는 8년 만의 울산전 승리, 팀 1부리그 최다승(기존 2016년 11승) 신기록, 9경기 연속 무패(5승 4무) 행진을 달리며 3위를 지켰다.

1위 팀을 상대로 만든 승리였기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는 뜨겁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는 서울벌도 깨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광주는 서울과 두 차례 만나 0-2, 1-3 패를 기록했다. 아직 승리가 없는 서울을 상대로 10경기 연속 무패를 이기고 3위를 지키는 게 광주의 목표. 광주는 다양한 공격루트로 서울 골대를 노리게 된다.

앞선 울산과의 경기에서 새 외국인 선수 베카가

17일 FC서울 상대 원정 경기 “10경기 연속 무패 이어가겠다” 전남, 경남FC 상대 창원 원정

기다렸던 골을 터트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광주 공격의 핵 엄지성호와 허을은 올림피아 대표팀에 참가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팀에서 가장 많은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사니는 알바니아 대표로 나서 유로 2024예선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득점포를 생산했다.

수비도 탄탄하다. 골키퍼 김경민을 중심으로 안영규, 아론 센터백이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광주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무실점 승리를 장식했다. 팀은 이 두 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었다.

K리그의 강호로 꼽히는 서울은 올 시즌 11승 10무 8패(승점 43)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다. 12승 9무 8패(승점 45)로 3위에 랭크된 광주와 승점 2점 차.

서울은 기성용, 나상호,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김주성 등 최고의 선수들로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요원 수완상성과의 ‘슈퍼매치’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6경기 연속 무승에서도 탈출했다.

분위기를 탄 두 팀의 한판 승부에 눈길이 쏠린다.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17일 오후 1시 30분 창원 원정으로 간다. 전남은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3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화끈한 화력으로 뜨거운 8월을 보냈던 전남이지만 최근 최근 3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면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을 짊어주는 휴식 뒤 ‘공격’에 맞춰 경남전을 준비했다.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골대 앞까지 침투해 유효슈팅으로 골 결정력을 높이는 훈련에 공을 들였다.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도 살리고 전술적인 부분도 재점검했다.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이용재와 미드필더 장성재가 좋은 움직임을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경남전에서 골맛을 봤던 하남과 발디비아도 좋은 기억을 살려 경남 골대를 노리게 된다.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상태. 특히 클레이슨, 원기중, 카스트로가 전남이 경계해야 하는 상태다.

휴식기 동안 화력 살리기에 나섰던 전남이 경남 원정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안게임 황선홍호 ‘이강인 딜레마’

대표팀 합류 안해 ‘이 빠진’ 훈련 5년 전 손흥민 늦게 합류해 우승

말 그대로 ‘이강인 딜레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3연패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를 닷새 앞두고도 ‘완전체 훈련’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지난 13일부터 최종 담금질에 들어간 황선홍호는 16일 중국 현지로 출발한다.

이번 대회에서 황선홍호는 조별리그 E조에서 19일 쿠웨이트, 21일 태국, 24일 바레인고 차례로 맞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한창 막판 전술 훈련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황선홍호는 핵심 공격자원으로 손꼽히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이 합류하지 않아 ‘이 빠진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PSG가 이강인의 정확한 차출 시점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황선홍 감독의 애를 태우고 있다.

허벅지 부상에서 최근 회복한 이강인은 소속팀 훈련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황선홍호에 희소식이다.

하지만 PSG는 대표팀 합류 시점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조별리그 1~2경기 정도는 맞추면 좋겠다”라며 사실상 오는 19일 쿠웨이트와 1차전 출전의 희망은 접은 모양새다.

이강인의 ‘지각 합류’를 보면서 축구 팬들은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당시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지휘한 김학범 감독은 와일드카드로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노리치 시티·당시 김바 오사카), 조현우(울산·당시 대구)를 선택했다.

하지만 김 감독도 손흥민의 합류 시점 때문에 애를 먹어야 했다.

김학범호는 2018년 8월 12일 새벽 인도네시아

에 도착해 곧바로 첫 훈련을 준비했지만, 손흥민은 합류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앞서 11일 치러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을 뒀 뒤 영국을 떠나 싱가포르를 경유해 13일야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힘겨운 일정을 소화했다.

결국 김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2018년 8월 15일 바레인고 조별리그 첫 경기에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뛰게 하지 않았다.

사흘 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손흥민이 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1-2로 패하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고 조별리그 3차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지며 16강에 진출했다.

이후 승승장구한 김학범호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2년째의 광파르를 올렸다.

5년 전을 돌아보면 황선홍호 역시 ‘핵심 공격수’의 부재 속에 조별리그 1, 2차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황선홍호에는 정우영(수투트르트)과 조영욱(김천) 등 경기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들이 있다. 여기에 유럽파 흥현석(헨트)을 비롯해 K리그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송민규(전북)와 엄원상(울산) 등 2선 공격자들도 버티고 있다. /연합뉴스